

다함교회 셀예배 교안

솔로몬의 연설

— '내가' 지은 성전에서 '주께서' 이루신 성전으로 —

본문: 열왕기상 8장 12-21절

소요 시간: 약 60-70분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다함교회 · 2026년 9월 6일

셀리더를 위한 준비 안내

이번 주 셀모임의 목표는 주일설교(왕상 8:12-21)를 각자의 삶에 착륙시키는 것입니다. 핵심 메시지는 세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① 하나님은 인간의 열망까지 구속사의 방편으로 사용하시지만 건물과 형식에 갇히지 않으신다. ② '내가'가 커질 때 신앙은 무너지기 시작한다. ③ 하나님은 넘어진 자를 위해 돌이킬 길(신 30장)을 미리 예비하셨고, 그 길이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이다.

리더는 정답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나눔의 물꼬를 트는 사람입니다. 특히 '적용 질문 3번(나의 내가 점검)'과 '4번(실패와 회복)'에서는 리더가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짧고 정직하게 나누어 안전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실패 경험 나눔은 강요하지 말고 자원하는 지체에게 맡기십시오.

셀예배 순서

1. 여는 기도 (2 분) — 리더 또는 지체
2. 찬양 (10 분) — 새찬송가 210 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620 장 「여기에 모인 우리」
3. 마음 열기 (10 분) — 아이스브레이킹
4. 말씀 요약과 관찰 (15 분) — 본문 함께 읽기 및 요약 나눔
5. 적용 나눔 (25 분) — 적용 질문 중심
6. 중보기도 (10 분) — 기도제목 나눔과 합심기도
7. 마침 기도 및 광고 (3 분)

1. 마음 열기 (아이스브레이킹)

- 지금까지 내 손으로 만들었거나 이루어낸 것 중 가장 뿌듯했던 것 하나를 소개해 봅시다. 그때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듣고 싶었나요?
- (가볍게) 웅장한 건물이나 장소에 들어가서 압도당했던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

2. 말씀 요약과 관찰 질문

함께 열왕기상 8장 12-21절을 소리 내어 읽습니다. 이후 아래 관찰 질문으로 본문을 살펴봅니다.

1.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12 절)? 솔로몬이 지은 화려한 성전과 '캄캄한 구름'은 어떤 대조를 이룹니까?
2. 16 절에서 하나님은 성전 건축에 대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본래 택하신 것은 '성읍(건물)'입니까, '사람(다윗)'입니까?
3. 13, 20, 21 절에서 반복되는 주어를 찾아봅시다. 솔로몬의 연설에서 '내가'는 몇 번 등장하며, 이것은 무엇을 드러냅니까?
4. 설교에서 들은 대로, 이 본문이 바벨론 포로기의 독자들에게 처음 읽혔다는 사실은 본문 이해를 어떻게 바꿉니까?

이번 주 핵심 요약

성전도 왕정도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 아니라 인간의 열망에서 나왔으나, 하나님은 이를 허용하셔서 인간이 스스로의 한계를 경험하고 참 왕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장소와 형식이 아니라 예배자의 삶을 보시며(렘7장), '내가'로 가득한 신앙은 몰락의 씨앗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넘어질 백성을 위해 돌이킬 언약(신30장)을 미리 두셨고, 그 성취가 십자가입니다.

3. 적용 나눔 질문

1. [형식과 삶]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것이 여호와와의 성전이라'는 부적처럼 붙들고 있는 종교적 형식(주일성수, 직분, 봉사 경력 등)이 있습니까? 그 형식이 삶의 순종을 대신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누어 봅시다.
2. [예배와 일상] 예레미야 7 장은 성전에 들어가는 발걸음보다 성문 밖의 삶(정직, 약자 보호)을 먼저 물었습니다. 이번 주 나의 직장·가정·학교에서 '삶의 예배'가 가장 필요한 구체적인 장면 하나는 무엇입니까?
3. [나의 '내가'] 최근 나의 말과 마음속에서 '내가 이루었다'는 언어가 커졌던 영역은 어디입니까(자녀, 사업, 사역, 성취 등)? '주께서 이루셨습니다'로 바꾸어 고백해야 할 것을 하나씩 나누어 봅시다.
4. [실패와 회복]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기 전에 이미 돌아올 길을 예비하셨습니다(신 30:1-3). 과거의 실패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한 이야기가 있다면 나누고, 지금 회복이 필요한 지체를 위해 어떻게 함께 기도하고 도울지 이야기해 봅시다.

4. 중보기도 제목

1. 우리 셀의 각 지체가 형식이 아닌 삶으로 예배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2. 각자의 '내가'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만 높이는 겸손을 위해
3. 실패와 낙심 가운데 있는 지체(와 그 가정)의 회복을 위해
4. 다함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마침 기도문 (리더용)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한 몸으로 불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눈 말씀대로 저희의 예배가 형식에 머물지 않고 월요일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저희 입술의 '내가'를 작게 하시고 '주께서'를 크게 하시며, 넘어진 지체가 있다면 주께서 예비하신 회복의 길로 손잡고 함께 돌아가게 하옵소서. 한 주간 성령께서 저희 각 사람 안에 거하시라 저희 몸을 주님의 성전으로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